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6년 5월 24일(화) 15:00
담당자	안상훈 KDI 산업·서비스경제연구부장 (044-550-4770, ahn@kdi.re.kr) 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 (044-550-4127, suillee@kdi.re.kr)
배포일시	2016년 5월 24일(화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KDI 정책세미나

규제 개선과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

- 일 시: 2016년 5월 24일(화) 15:00~17:30
- 장 소: 은행회관 국제회의실(2층)
- 주 최: KDI
- 후 원: 기획재정부

□ KDI는 5월 24일 '규제 개선과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'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, 서비스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

-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, 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으나 잠재성장률의 하락,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,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함.

□ 정책세미나는 ‘서비스산업 규제 개선’, ‘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’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

- 첫 번째 ‘서비스산업 규제 개선’ 세션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의료, 관광, 방송·통신·콘텐츠, 소프트웨어, 금융, 교육, 교통·물류 등 서비스 분야별 주요 규제들을 유형화하고, 유형별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,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
- 두 번째 ‘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’ 세션에서는 안상훈 KDI 산업·서비스경제연구부장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다양화 및 개선 방안을 논의

□ 김주훈 소장은 축사에서 “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시기에는 저축과 투자가 성장을 위한 미덕”이었으나 “소비 억제를 위해 추진된 강력한 규제가 이제는 내수에 의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”라며 “이번 세미나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및 서비스경제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힘.

□ 세미나에는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, 안상훈 KDI 산업·서비스경제연구부장, 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,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, 이주선 SK 경제경영연구소 실장,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

❖ **첨부 1 프로그램**

❖ **첨부 2 발표요약**

❖ **첨부 1 프로그램**

시 간	내 용
14:30~15:00	등록 및 네트워킹
15:00~15:10	개회식 개회사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
15:10~16:10	<p>세션 1. 서비스산업 규제개선</p> <p>좌 장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</p> <p>발 표 1. 서비스분야별 규제개선 방향 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</p> <p>토 론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이주선 SK경제경영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</p>
16:20~17:20	<p>세션 2. 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</p> <p>좌 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</p> <p>발 표 2. 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방안 안상훈 KDI 산업·서비스경제연구부장</p> <p>토 론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</p>

❖ 첨부 2. 발표요약

세션 1. 서비스산업 규제개선

발표 1. 서비스분야별 규제개선 방향

이수일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겸 규제연구센터소장

-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,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의식 부재, 규제개혁의 부작용과 잠재적 편익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의 다양한 어려움 존재
-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은 서비스 내 사회적 규칙 및 제도, 경제 주체의 역할, 지위 변화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려움.
- KDI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
 - 의료분야 규제개선은 개인의 선택과 산업성, 금융분야 규제개선은 업역·산업 간 융합, 관광분야 규제개선은 수요의 다양성에 따른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하는 등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세션 2. 서비스산업 인식과 개선 방향

발표 1. 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방안

안상훈 KDI 산업·서비스경제연구부장

-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(KDI, 2016년 5월 조사) 결과,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나 서비스산업 현실은 부정적으로 인식
 -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'경제성장'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64.8%, '일자리창출'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68.6%에 달함.
 -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임금, 일자리의 양과 질, 취업선호도,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고 보고 있으며,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
 - 해당 항목별 5점 척도('매우 낮다' 1점, '보통' 3점, '매우 높다' 5점)로 측정한 결과, 전 항목 응답 평균값이 2점대에 머물러
 - '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'는 질문에 응답자의 66.5%가 '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'고 답함.
-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및 질 개선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
 -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'공급자단체의 권력 행사에 비해 소비자 보호 부족'(41.5%)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'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부족'(25.7%), '정보제공 부족'(21.25) 등이 그 뒤를 따름.
 - 한편 보육, 요양, 주거, 교통, 관광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별 대표적인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

□ 보육, 요양, 주거, 교통, 관광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다양화 및 질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, 이해관계 조정, 업계의 역량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이 앞서야 함.

○ 서비스 영역별 관련 전문가 FGI(Focus Group Interveiw, 표적집단심층면접)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방안 논의

- (노인요양 및 보건) 외국인 환자 및 국내 VIP 노령환자를 위한 용양기관 설립,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
- (주거) 온라인 및 모바일 주거서비스 개선, 종합부동산서비스(개발-시공-분양-중개-관리 묶음 서비스) 및 월세카드서비스 도입 등
- (교통) 고속/시외버스 통합 예매·발권 서비스 도입, 광역버스(직행좌석, 광역급행 형) 좌석예약제 도입, 고속/시외버스 차량 시설 다양화 등
- (관광) 관광안내사 고부가가치화, 해외 VIP 등 국내외 고소비층 특화 상품 개발
- (보육)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·시간제보육 서비스 차별화, 99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건강·영양 전문가 파견